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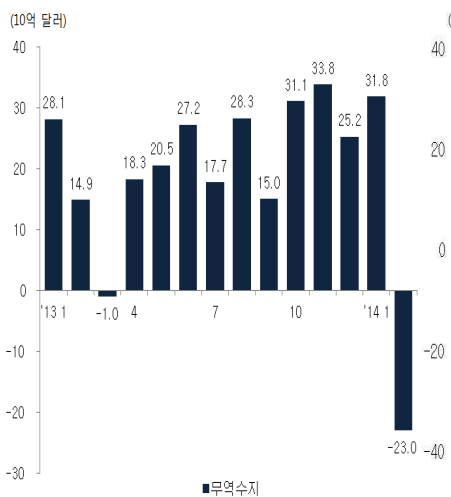
중국경제 둔화 우려와 시사점

최 원 선임연구원

■ 2월 중국의 수출부진과 물가 하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등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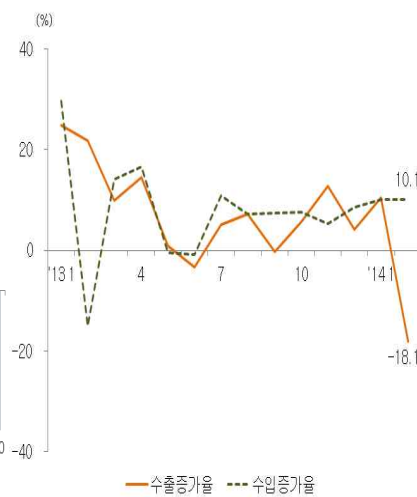
- 중국의 2월 무역수지는 229억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고, 수입 증가율이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출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18.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3년 10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2013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 등 계절적 요인이 존재하기는 하나 임금상승과 위안화 강세 등 글로벌 가격경쟁력 약화도 수출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림 1〉 중국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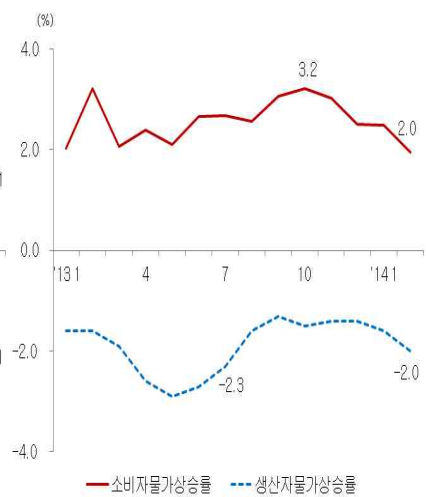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2〉 중국 수출/수입 증가율



자료: Bloomberg.

〈그림 3〉 중국 물가상승률



자료: Bloomberg.

■ 또한 2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¹⁾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은행 신규대출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신규투자 위축도 우려되고 있음.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하락은 경제 구조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 지속 및 단기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계절적 요인으로 제조업 부문 경기약화도 나타났기 때문임.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2월 위안화 신규대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245억 위안 증가한 6,445억 위안으로 전분기들의 예상치인 7,300억 위안을 크게 밑돌았으며 이 역시 제조업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은행의 신규대출, 채권발행, 신탁차입 등 전체 자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2월 사회용자총액도 9,38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318억 위안이나 줄어들었음.

〈그림 4〉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자료: Bloomberg.

〈그림 5〉 중국 사회용자총액



자료: Bloomberg.

■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둔화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2013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전 세계 교역액의 약 12% 수준인 4조 1,6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120여 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임.

1)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urchasing Management Index)는 제조업 구매담당자가 경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담고 있는 지수로 50 이상이면 확장, 50 이하면 축소를 의미함.

- 특히, 2013년 중국 총수입액은 약 2조 달러 규모로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무역대상국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수출이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으며 중국의 수출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경제둔화, 그리고 무역대상국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다 급속한 경기둔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으나 점진적인 경기둔화의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경제도 수출의존도가 높고 대(對)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중국 경제둔화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높은 대외의존도 해소 및 무역대상국 다변화, 그리고 내수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짐.
-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최근 총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음.
 - 대(對)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약 9% 수준에서 2013년 약 26%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여,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대상국임.
 -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내수기반 확대 및 투자여건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고, 무역대상국 다변화를 위하여 신흥국과의 전략적 FTA 활용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

(연합뉴스, Bloomberg 등)